

임선영 전반 3분 '벼락골'…광주FC 첫승

30일 홈 개막전 부천FC 2-0 격파…이종민 추가골

남기일 감독대행 “초반 압박 성공…무실점 기분좋아”



광주FC가 홈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했다.

광주FC가 3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부천FC와의 K리그 첼린지 2라운드 경기에서 임선영(사진)의 선제골을 기록하며 2-0승리를 거뒀다.

홈개막전에서 만든 시즌 첫 승, 광주 시즌 첫 골의 주인공 임선영이 첫 승의 주역이 됐다.

대구와의 개막전에서 경기 시작 4분 만에 골을 넣었던 임선영의 시즌 2호골은 전반 3분 만에 터졌다.

상대 진영 원쪽에서 침투하던 김



임선영

골문으로 날아든 부천 선수들의 기습 슈팅을 막아내면서 상대의 기세를 꺾었다.

공방전이 전개되면서 후반 10분 승부의 주를 기울이는 골이 나왔다. 페널티에어리어 오른쪽에서 광주 공격수 김민수가 상대 수비수의 과녁을 넘어서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이종민이 오른발로 침착하게 공을 밀어넣으면서 두 번째 골을 완성시켰다.

광주는 경기 막바지 전준형과 김호남을 빼고 각각 오도현·이완을 투입, 2-0 승리를 지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남이 중앙에 있던 김민수가 공을 크로스 했다. 김민수가 머리로 떨어뜨린 공을 임선영이 오른발 슈팅으로 처리하면서 부천의 골망을 흔들었다.

두 경기 연속 골을 본 임선영은 전반 막바지 부천 김륜도의 과녁에 실려가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공을 쫓던 임선영이 김륜도의 어깨에 얼굴을 맞고 쓰러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다행히 임선영은 큰 부상 없이 마지막 휴식이 끝될 때까지 경기를 소화했다.

전반 35분 광주 골키퍼 류원우의 슈퍼세이브가 나왔다. 류원우는 광주



누가 빨랐을까?

지난 26일 나주롤러경기장에서 열린 제33회 전국남녀종별 롤러경기대회 여자일반부 3000m 계주 결승전에서 김미영(안양시청·왼쪽)과 안이슬(청주시청)이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판독기 판독결과 0.006초 차이로 김미영이 빨리 들어와 안양시청이 우승을 차지했다. 〈대한롤러경기연맹〉

목포대 박형상 국내 인라인 1인자 등극

전국 롤러경기대회서 3관왕·최우수선수 선정

나주중 김성창·광양제철중 최정미 2관왕 올라

목포대 박형상이 전국롤러경기대회 3관왕에 오르며 최우수선수에 뽑혔다. 2관왕은 나주중 김성창도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박형상은 최근 나주롤러경기장에서 열린 제33회 전국남녀종별로 경기에서 500m와 1000m, 3000m 계주에서 우승, 2관왕에 올랐다. 3000m 계주에서는 안산중(서하늘·김수현·임소리)이 4분39초981로 골인, 남원 용성중을 0.024초의 간발의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정세용(안산중)은 E15000m에서 동메달을 건넸다.

김성창은 중등부 남자 T3000m와 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 2관왕에 등극했다.

최정미(광양제철중)은 P3000m에서 11점을 획득하며 우승했다. 김명아는 1000m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총무고(정희망·강태우·최정한·안정인·조재용)는 3000m 계주에서 4분

(광양제철조)은 E5000m와 300m에서 각각 은메달을 땄다.

중등부에서는 김성창과 함께 최정미(광양제철중)가 T300m와 500m에서 우승, 2관왕에 올랐다. 3000m 계주에서는 안산중(서하늘·김수현·임소리)이 4분39초981로 골인, 남원 용성중을 0.024초의 간발의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정세용(안산중)은 E15000m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대학부에서는 목포대 김영윤이 500m에서, 한준희는 1000m와 P50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등부에서는 김찬호(광양제철고)가 남자 EP10000m에서 금메달을, 여수 충무고 조재용과 안정인은 500m와 P5000m에서 각각 동메달을 안았다.

총무고(정희망·강태우·최정한·안정인·조재용)는 3000m 계주에서 4분

13초222로 대회신기록을 깼지만, 서원고(4분11초100)·충남체육고(4분11초292)에 밀려 3위에 그쳤다.

총무고는 여자부 P5000m 경기에서 금(양하영)·은(강라주)·동(도영룡)을 싹쓸이했다. 3000m 계주(석다솜·도영룡·양하영)에서는 4분34초236으로 대회신기록을 깼지만, 한국호텔관광고(4분34초047)에 0.189초 뒤쳐졌다.

대학부에서는 목포대 김영윤이 500m에서, 한준희는 1000m와 P50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일반부 이영우(여수시청)는 EP10000m에서 금을, E15000m에서 동을 획득했다. 김주희(여수시청)는 P5000m에서 은을 땄다. 여수시청(김주희·김혜진·정세영·정은채)은 2000m 추월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구자철 시즌 첫 도움…팀은 3-0 승

독일 분데스리가 28라운드

레버쿠젠 손흥민은 침묵

한국 축구 대표팀의 2선 공격수 구자철(마인츠·사진)이 독일 프로축구에서 올 시즌 첫 도움을 올렸다.

구자철은 30일(한국시각) 독일 마인츠의 코파스 아레나에서 열린 아우크스부르크와의 분데스리가 28라운드 홈경기에서 2-0으로 앞선 후반 37분 요하네스 가이스의 빼기골을 어서스트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선 구자철은 페널티지역 위쪽 외곽에서 박주호의 패스를 받았다가 뒷쪽으로 살짝 내줘 가이스가 대포알 슈팅을 골망에 끊어

록 도왔다.

한국 대표팀의 원쪽 수비수인 박주호는 이날 마인츠의 원쪽 풀백으로 나와 날개 공격수에 가까운 공격 성향을 자랑했다. 박주호는 공수 양면에서 활약하며 최근 분데스리가에서 4경기 연속으로 펄타임을 소화했다.

한국 대표팀의 중앙 수비수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는 0-1로 뒤진 전반 30분에 투입돼 실책이 없는 수비를 펼쳤다. 그는 경기 막판에는 공격에 가담해 상대를 긴장시키는 헤딩슛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국 대표팀의 골잡이 손흥민(레버쿠젠)은 올 시즌 12호 골을 터뜨리지 못했다. 손흥민은 레버쿠젠의 바이 아레나에서 열린 브라운슈바이크를 비겼다. /연합뉴스

와의 28라운드 홈경기에 선발로 나와 후반 30분까지 뛰었다. 손흥민은 올 시즌 독일 2골, 분데스리가 9골 등 총 11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대표팀 공격수인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은 출전자 명단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청용(26)은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이청용의 별린 원더러스는 30일 영국 블韧의 리복 스타디움에서 열린 위건과의 2013-2014 페어리언십(2부 리그) 39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31분 루카스 주키비초가 만든 선제골을 끌까지 지키지 못하고 1-1로 비겼다.

/연합뉴스

군항제, 열주체육관 06:30(광주역, 비엔날레주차장) 경기 240m, 열주체육관 06:00※ 다음카페 광주도요산악회

▲보암산행스케치 4월 5일(금) 00:00※ 다음카페 9골 등

▲광주호사랑산악회 4월 5일(금) 00:00※ 다음카페 9골 등